

대학에서 일학습병행으로 학업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잡으세요!

- '25년 일학습병행 특화대학 모집 공고, 훈련규제는 풀고 지원금은 간편하게
- 10년간 훈련생 16만명, 기업 2만여 개 참여, 향후 청년 일학습병행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025년 일학습병행 특화대학(KAP)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에서의 일학습병행 훈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3년 도입된 일학습병행은 누적 훈련생 16만명, 기업 2만여 개소가 참여했다. 훈련생-기업 근로계약 체결 후, 학교에서 이론교육(Off-JT), 기업에서 현장훈련(OJT)을 병행하여 학업·취업을 동시에 이어나간다. 일학습병행은 구직자의 역량 개발·일자리 연계를 핵심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y)의 대표인 셈이다. 다만 청년 취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 일학습병행의 경우 과도한 규제, 복잡한 지원 체계 등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재학생 일학습병행 참여 현황('23) : 고교(7,454명) > 대학(3,481명)

이에 “일학습병행 특화대학”(KAP 사업)을 시범 선정*하여 제도 개편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 제도 적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25년 하) 또한 사업의 명칭 역시 한국형 도제제도의 의의를 강조하면서도, 청년층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 영문 명칭인 「캡(KAP: Korean Apprenticeship Program)」을 사용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존 일학습병행 참여 대학은 현재 재학생 유형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하며, 10.31.~11.12. 모집을 거쳐 11월 말 선정 예정(<https://www.hrdkorea.or.kr> 공지사항 참고)

❶ **훈련 내용**에서 대학의 일반 교과 및 기업특화과정(예: △△산업 반도체 설계공정)도 일학습병행 훈련으로 인정하여 대학·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② **훈련시간** 규제를 완화(훈련기간 6개월·훈련시간 300시간 하한으로 변경)하여 보다 유연한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훈련 편의성**도 나아진다. 이미 수강한 대학 교과목을 선(先)이수 처리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확대하여 실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비용지원** 방식도 간소화한다. 기업·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 종류를 단일화하고, 1인당 총액 지원으로 대학·기업의 편의성을 높인다.

〈일학습병행 특화대학 제도 개선 방향〉

	현행	개선 방향
대학	“대학 일반 교과와 별도로 일학습병행 훈련과목을 구성하기 어렵고, 운영비·훈련비 등 지원 체계도 복잡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일반 교과도 일학습병행 훈련 과목으로 인정 - 일학습병행훈련운영비 간편하게 지원
학생	“훈련시간도 너무 길고, 이미 아는 내용을 또 들어야 해서 부담스럽다. 실무 관련성 낮은 훈련을 하는 게 아닌지도 걱정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훈련 가능 - 이미 수강한 과목은 선이수 처리 - 프로젝트 기반 훈련으로 실무 역량 강화
기업	“훈련내용 규제 때문에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한 실무를 훈련하기 어렵고, 지원금 명목도 많아 불편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규제 완화, 기업 현장 직무를 훈련 - 지원금 명목 현장훈련비로 통합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일학습병행은 그동안 한국형 도제체도로써, 현장 실무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라고 강조하면서, “내년부터는 일학습병행 특화대학을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점에서 청년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기업 맞춤형 훈련을 받고, 사회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2025년 일학습병행 특화 대학 모집 공고 주요 내용

붙임2: 기존 일학습병행 참여 대학 명단

붙임3: 일학습병행 개요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우영 (044-202-7264)
		담당자	사무관	양선재 (044-202-7309)



2025년부터 대학교에서 일학습병행 훈련이 쉬워집니다!

규제 완화 및 자율성 확대

<현행(As is)>

NCS*적용

NCS 의무 적용
(대학 교과과정 및 기업 실무와 맞지 않는 경우 유)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최소
훈련기간·시간**

최소 훈련기간 1년
+ 최소 훈련시간 400시간
(학기 단위 훈련 불가)

훈련인정

-대학 전공교과 선이수 인정시
제출서류 복잡(10종)
-대부분의 현장훈련 장소, 시간 통제됨

<개선(To be)>

➔ **NCS 과정과 非NCS 과정 선택 가능**
(대학 교과과정 및 기업 실무에 맞춘 훈련과정 설계 가능)

➔ **최소 훈련기간 6개월
+ 최소 훈련시간 300시간**
(학기 단위 훈련 가능)

➔ **-대학 전공교과 선이수 인정시
제출서류 간소화(1종)
-PBL(Project Based Learning)
전면 허용하여 장소, 시간 통제 없는
성과 기반 현장훈련 확대**

▶ 대학의 학사제도 및 기업 실무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유연하게 연계

비용 지원 방식 개편

<현행(As is)>

**지원 방식
간소화**

-기업·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 명목 多
(훈련비, 숙식비, 훈련장려금, 운영비 등)
-지원금 지급 주기 매월, 연2회 등 복잡

지원액 산정

단가×시간×지원율
(훈련시간, 단가 등 엄격한 통제)

<개선(To be)>

➔ **-지원금 명목 '현장훈련비(기업),
일학습병행훈련운영비(학교)'로
2가지로 간소화
-지원금 지급 주기 연 2회로 통일**

➔ **1인당 단일금액 지원**
(훈련시간, 단가 등 불필요한 통제 X)

▶ 연간 훈련 지원액 간편하게 지급

□ 전문대학 77개소

ICT폴리텍대학, 강동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장대학교, 대림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수성대학교, 신경주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 연성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재능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한양여자대학교

□ 4년제 대학 40개소

경남대학교, 경성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원대학교, 영산대학교, 협성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인천대학교, 강원대학교, 대구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홍익대학교, 목원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의대학교, 목포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라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신대학교, 경북대학교, 광운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신대학교, 배재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한남대학교, 강남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대학교, 중부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 **사업개요**

- '13년 일학습병행* 도입, 재학생과 재직자 대상으로 도제식 현장 훈련(산업수요 반영) 시작 후 지속 성장
 - * 기업이 청년 등을 先채용 후 체계적 현장훈련(OJT)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이론교육(OFF-JT) 후 일학습병행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제도
- '20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 강화

□ **제도 운영현황**

❖ 학습근로자의 훈련 전 신분에 따라 재학생·재직자·구직자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훈련 과정 80% 진행 시 내·외부 평가 합격자에게 일학습병행 국가자격 부여

- (재학생) 고교/전문대/4년제 재학생 중 빠른 취업을 원하는 학생 선발·학습기업과 매칭한 뒤, 근로계약 체결 후 일학습병행 참여 → 청년 '조기 취업' 지원
 - * 재학생 참여 현황('23) : 직업계고(7,454명) > 4년제(2,467명) > 전문대(1,014명)
- (재직자) 학습기업에 채용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중 학습근로자 선발하여 일학습병행 참여 → 직장 '조기 적응' 지원
 - * 직업계고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학습근로자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대(2년, P-Tech), 4년제 편입(2년, 경력개발고도화) 과정 운영
- (구직자) 재학·재직 여부 무관하게 구직자에게 사전이론교육 실시하고 학습기업과 매칭한 뒤, 근로계약 체결 후 재직자형 일학습병행으로 연계 → 구직자 '취업 연계' 지원

□ **추진실적**

- 학습기업 21,265개, 학습근로자 156,536명 참여('24.9. 누적 기준)

< 일학습병행 훈련 프로세스 >



